

올 농업생산액 43조...2% 줄 듯 비용 줄어 농업소득은 1% 증가

호당 농가소득 3668만원 작년보다 늘어 쌀 가격 1.2% 하락...과일가격은 오를 듯



올해 농업소득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확의 기쁨을 더해주는 황금 들녘. <광주일보 자료 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올해 농업소득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농광열비와 비닐 등 영농원자재 가격 등으로 투입재 가격은 전년보다 4.4%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농산물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농업생산액은 43조89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배업 생산액은 재배면적 감소 여파로 전년보다 1.2% 감소하고, 축산업생산액도 돼지 가격 하락으로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산물수요 회복 및 생산 감소 영향으로 농가판매가격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668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경기회복으로 농가소득은 3.3%, 직불금 등 이전수입은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가격은 평균 16만9000원(80kg) 내외로 전년보다 1.2% 하락할 전망이다.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80만 1000ha, 쌀 생산량은 401만t으로 전망된다.

과일가격은 전년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4% 증가하지만 생산량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와 복숭아는 재배면적이 각각 1%, 5% 증가하겠지만 배, 감귤, 단감은 각각 1%, 1%,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황이 평년 수준일 경우 올해 사과 생산량은 다소 늘겠지만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예측이다.

올해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 현지의 냉해로 수입이 급감했던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수입량은 칠레의 계절관세가 무관세로 전환됐고 칠레산 포도의 작황이 양호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의 경우는 배추, 무, 양배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 3%,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배추와 당근의 생산량은 5%,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한우도매가격의 경우 전년보다 4.3% 상승한 kg당 1만4878원,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11.6% 하락한 kg당 4241원으로 각각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과, 꼭지 따르지 않아야 감, 얼룩 없고 모양 좋아야 소고기, 살코기·지방 조화



설명절 과일·고기 잘 고르기

농촌진흥청이 설을 맞아 맛과 영양은 물론 품질 좋은 과일과 고기를 고르는 방법을 4일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선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 없이 매끈한지를 살핀다. 사과를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며 만졌을 때 단단해야 한다. 또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고 꼭지가 따르지 않아야 좋은 것이다. 배는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 반대편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어야 한다.

감은 얼룩이 없고 둥근 사각형의 모양이 제대로 잡힌 것이 좋다. 꼭지와 고

반대편 부위가 움푹 들어간 것은 피해야 한다. 남은 과일을 보관할 때 사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과는 성숙 촉진 호르몬인 에틸렌을 생성해 배와 감의 연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사과는 따로 밀봉해 1도 안팎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

소고기는 밝은 선홍색의 살코기와 유백색의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섬세하고 탄력 있는 고기 결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탕·국을 끓이려면 사태나 양지 등 국거리용 고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붉은색의 살코기와 지방만 있는 것보다는 근막 같은 결합 조직이 적당히 있는 것을 고른다. 근막은 질기지만 꼭 고아 육

수를 내거나 오랜 시간 걸쳐 끓여내면 깊은맛을 낸다. 산적이나 꼬치를 만들 때는 우둔, 설도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다. 근막이 없고 고기 결이 균일한 것을 고르되 얇게 썬 다음 결과 각각이 되도록 칼집을 내주면 좋다. 근육이 단단해 질질 수 있으므로 배, 무 등을 넣고 양념해 부드럽게 해준다.

갈비는 육질은 질기나 고기, 지방과 뼈에서 나오는 육즙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내는 부위다. 구이용은 선명한 선홍색을 띠면서 마블링이 적당히 있고 근막이 작아야 좋다.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므로 고기의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면 더욱 연하게 먹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농협 만들자” 3일 농협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청렴한 농협·신뢰받는 농협 구현에 앞장 설 것과 구제역·AI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수협 양식·어선재해보험 지방비 보조 신설·확대 올 114억원 편성

수협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등 정책보험에 지방비 보조가 신설·확대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양식보험 지방비 총 보조액은 30억3000만원이다. 어재보험도 84억4500만원이 편성됐다. 양식보험과 어재보험 모두 지방비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57%, 26% 늘어났다. 이에 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를 통해 보조하고, 지자체에서는 납입보험료 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재보험의 지방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임의가입 대상인 5만 미만 어선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어선원보험은 94.2%, 어선보험은 82.6%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지방비 보조는 2006년 경남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서는 어선보험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양식보험의 경우 전북, 경남, 경북, 충남 등 5개 자치단체에서 납입보험료의 50~60%를 보조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충남, 전북, 경북 등 3개 광역단체에서 양식보험 지방비 보조 예산을 신규 편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광역 및 지자체에서 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가 확대된 배경에는 수산정책보험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꼽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농업소득 증대 지자체 협력사업 강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자유무역협정(FTA)·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4일 밝혔다.

지자체협력사업은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과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

여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이 공동으로 2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조성한 후 지자체와 농업인의 투자를 유치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농가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농가, 다문화 가정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나해에는 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이

198억원, 지자체 178억원, 농업인 자부담 39억원 등 총 415억원을 조성해 우량육묘 공급, 무인헬기 구입, 시설하우스 개토 지원, 점적관수 설치 사업 등을 지원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지자체협력사업을 통해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해 살기 좋은 전남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원	371-9818
윤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신월	673-1600
신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암남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